

이 달의 책

통운의 유마경 풀이

구마라습이 한역한 『유마경 소설경』을 중국 명대의 학승 통운이 소(疏)를 붙여 『유마경 소설경통운직소』를 펴냈고 이에 대한 주석서가 바로 『통운의 유마경 풀이』이다.

유마경은 초기불교, 소승·대승불교의 사상과 실천적 교의를 간명하게 집대성하여 반야경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경전이다.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구마라습의 한역본 유마경을 세세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점과 중국 선불교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통운 지음
일기 옮김
책신 40쪽
값 8000원
대원사

그 누가 큰 꿈을 깨었나

해방 이후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은 모두 13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6명이 임기 중에 타의로 종정직에서 물러났다. 종단 내부의 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대 종정에 대한 대수(代數)와 예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은 역대 종정의 전기라 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불교전거기까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방 이후 근대 한국 불교의 흐름을 종정 스님들의 발자취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김영복 지음
책신 40쪽
값 11000원
가람기획

산사의 미를 찾아서

"산사를 찾는 이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이는 것만 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산사는 깊숙한 곳에 갈수록 깊어진다. 하지만 더 깊숙한 것은 혼탁함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 풍속 등을 모두 품고 있는 사찰의 그윽함을 시선에 담았다. 20년 가까이 사찰을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그리 길지 않은 글귀들이 한 편의 시처럼 다가온다.



박희봉 지음
책신 200쪽
값 8000원
다원사상



박기영 지음
책신 250쪽
값 7000원
도서출판 달궁

합장

종교의 구원과 삶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선승들의 생활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들을 통해 독자들을 선의 세계로 이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온 경에서 성철 스님이 이르기까지 이 땅의 구도자들이 어떤 가치에 집착하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삶을 살아 온 경봉·경허·만공·만암·성철·정각·정담·효봉 스님의 전설 같은 일화들이 담겨 있다.

도을 김용욱이 말하는 노자와 21세기(上)

요즘 EBS 교육방송에서는 빌려님 특강 고전 강의의 열풍이 있는데 주제는 '노자'다. 이 책은 이번 특강의 교재로 '노자'를 배울 때는 21세기를 말할 수 없다는 저자의 '노자도 덕경'의 해석을 담고 있다.

거칠고 막힘없는 독특한 강의로 유명한 저자는 강단에서 맞설 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벗어나 매스컴을 통해 국민 누구나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김용욱 지음
책신 200쪽
값 6000원
통나무

이제, 승려의 입성을許함이 어떨는지요

개항기인 1876년부터 1912년 사찰령 시행까지의 불교 근대사를 정리한 책이다. 이 시기의 연구 부족으로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자의 주장이 그대로 왜곡되어 개화기 조상불교계 전체를 단일 편향으로 해석해 왔던 기존의 생각들을 반박하고 그 근거들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일본불교와 식민주의자들의 낡은 시각으로 한국불교를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서 벗어나 한국불교인의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한영우, 안희준, 배우성 지음
책신 250쪽
값 3000원
도경출판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우리 옛지도의 발달과정, 지도를 제작하게 된 역사적 배경, 지도 편찬에 관한 문헌자료, 우리 나라에만 특이하게 발달한 천하도(天下圖)의 실체, 옛지도는 땅을 비스듬하게 내려다보고 그렸기 때문에 산과 강, 건물 등의 입체상이 뚜렷한 전통적인 화원의 손에 의해 그려진 옛지도의 특성을 미술사가의 시각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새 사람의 자리에 의해 집필되었다. 고지도의 영인 보급과 고지도에 대한 해설서가 없는 시점에 출간되어 의미가 깊다.

불자로 태어나라

포교 현장에서 20여 년 간 활동하면서 몸으로 익힌 포교 실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불자들을 대상으로 살게로 교육했던 실천 사례들을 담고 있는데 불자가 되는 과정부터 불자의 바른 삶, 사찰공동체 생활, 불교의 근본전리, 불보살의 의미와 불교상징물, 절에 가는 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도 교육 교재로 사용할 때에는 예불, 강의, 휴식, 불상개발프로그램, 다림의 발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한다.



이명성 지음
책신 300쪽
값 5000원
경우사적

불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경전

제가 불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생활관·가치관·인생관을 담고 있는 우비대·우바이 경전들을 한데 묶었다.

남성 불자에게는 『불설부도은남보경』, 『불설개경』, 『대중선생경』, 『우비대경계수계품』 등의 경전을, 여성 불자에게는 『불설독모경』, 『불설은비내경』, 『불설일상사경』, 『우바이정법문경』 등의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 불자들이 흔히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일명경 등을 공부하기 앞서 재가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경전들인 셈이다.



석범성 지음
책신 300쪽
값 13000원
은우사

『소태대왕처럼 찾아가기』

방 거사 어록



아리아 요시타카(入道惠高) 양기봉 옮김 / 값 8500원 / 값 5000원

누구나 한 번쯤 시인을 꿈꾸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쯤 출가한 꿈꾼다. 때문 그것이 가솔(家出)이라는 일탈의 형태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성공하기도 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의 수행자 즉 스님이 탄생한다. 그리고 꿈을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삼보를 무너뜨린다는 일을 수행 방편으로 삼고, 나만의 수행으로 '부처'를 꿈꾸기도 한다.

인도의 유마(維摩?~?) 중국의 방언(龐參?~808), 한국의 부실(浮屠, 신라 말) 등의 꿈은 이루지 못했는지 부처의 꿈은 차마 접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민히 그 남이다. 흔히 방 거사라 불리는 이들은 부처의 경지란 결코 승과 속이라는 이과는 무관한 것임을 온 삼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유마경』과 『방 거사 어록』 그리고 『부실전』으로 만날 수 있는데, 어떤 호에서는 그중 『방 거사 어록』을 찾아간다.

먼저 방언이란 인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당나라 때의 사상으로, 자는 도현(道玄), 흔히 방 거사라 불린다. 석주 스님을 뵈고 선지(禪旨)를 얻은 다음, 마조 스님의 문하에서 2년 동안 참학하였다. 대나무 세공품을 만들어 팔아 지자에 내다 판 것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꾸려갔지만, 당대의 이름난 선사들을 통째로 꿰어 버리는 선(禪)의 고수였다.

『방 거사 어록』은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중 상권에 해당하며 거사의 약전(略傳)과 언행이 주된 내용이다. 나머지 두 권은 계승을 모은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마침 서문에 방 거사의 가솔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임종이 다가오자 말 영조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환상일 뿐, 보이는 대상은 너의 인식 작용이 지은 바. 밖에 나가서 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다가 한낮이 되거든 일러 주렴."
영조는 문밖을 나서자마자 바로 일었다.
"발세 한낮입니다. 계가 일사이고요. 잠깐 나와보세요."
"살마!"
"그렇다니가요."
아래 거사가 자리를 떠나 향가로 가서, 냄비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한 상을 마셨다. 되돌아보며 거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엎사계도 재주부렀군."
거사는 장작을 주머니에 뒀 차리를 마셨다. (자본 특성상 책의 내용을 조금 줄이고 고쳤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임종의 순간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스승 뛰어넘기가 또 있을까? 그야말로 그 아버지가 그 딸이다.
옛날 것만으로도 도사가 된 이 기본,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 느껴보시기를, 더 이상의 소개는 삼간다. 아무리 짧아도 본전 못 건질 것 같아서.

윤재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길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지금, 출판 관계자들은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출판은 아직까지 실험성 문체에 있어서 모호하지만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란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비로보와 '이마존'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서를 압축 파일로 판매하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출판 상황에서 불교 전문출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연 불교계는 어떤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 전문출판계는 인터넷 사이트나, 홍보물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교 전문출판자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 출판 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사이트들을 개설한다면 운영난 해소와 독자 인구 확대와 아울러 불교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있는 공동 출판 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사이트들을 개설한다면 운영난 해소와 독자 인구 확대와 아울러 불교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 출판계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었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천년에는 고급 문화를 잠재력으로 지닌 불교 전문출판계의 독자들을 위한 작은 실천을 기대해 본다.



라이온에어 지음 / 김진우·류희송 역음 / 책신 304쪽 / 은우사 펴냄 / 값 8000원

이 책을 말한다

『불교와 유학』

불교 사상과 유가학설의 상호 관계를 논한 책.

김중근 지음

인도 문화권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사막 지대에 전해진 불교는 다시 동쪽으로 전해져 중국에 전래되었다. 중국은 옛부터 유교나 노장 등의 고유사상이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깊이 지배하고 있었다. 외래 종교인 불교는 이들 사상과 융합하면서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를 형성해 갔다.

불교의 역사상 교리가 가장 발달한 것은 중국불교로서, 천태종이나 화엄종 등 교리적으로 우수한 종파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성립된 모든 종파들은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불교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불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의 모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독자적인 전개를 해 나가기 위한 인류가 된 것은 중국불교의 영향이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불교의 연구와 이해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중국 고대철학, 특히 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중국불교는 어느 한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불교와 유학』은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불교 사상과 유가학설의 상호 관계를 논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사유양식과 사상, 학술의 특징, 이론 위치 등의 측면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의 동이(同異), 서로간의 영향과 침투 등을 깊이 분석하여 논하고 있다.

또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어떻게 불교가 유가의 영향을 받아 유학화 되는가를 밝히고 있다. 동시에 불교가 중국에 자리잡은 이후 유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유교와 도교가 어떻게 서로 융합하였고, 어떻게 유(儒)·불(佛)·도(道) 삼교로 정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불교는 양한 시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 고대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사상·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학술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의 중국화는 바로 불교화의 유학화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학술과 사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가운데 유가사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불교의 본체론적인 사유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발전의 시각에서 말한다면, 불교 사상의 윤리화 및 심성화와 유가사상의 본체론으로 말미암아 결국 삼성 본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송명시대의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불교와 유학의 상호 침투와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중국 학술 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중국불교, 특히 중국화한 중국선은 중국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또한 반대로 중국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중국철학은 물론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의 중국철학에 대한 이해 역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중국불교와 중국철학의 주류를 이룬 유학과 불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 불교는 양한 시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중국 고대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사상·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중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
- 학술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의 중국화는 바로 불교화의 유학화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안 독서



케이크와 부처
이로 세지 지음
김영웅 옮김
책 209쪽
값 5000원
불일출판사

어린 아이에게 물었다.
"케이크는 왜 여럿이 나누어 먹어야 하지?"
"아이가 대답했다.
"케이크를 못 가진 아이들이 가 없으니까요."
아이가 아직 이해하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케이크를 나누는 것만이다."
"케이크는 혼자서 먹으면 맛이 없다. 여럿이 나눠 먹는 편이 훨씬

맛있다. 바로 부처의 마음을 갖기 위해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다." 짧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보시는 상대방에게 큰 은혜라도 보시는는 거대한 틀에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바라밀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불교'라는 거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짧고 명쾌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육바라밀, 즉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바라밀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차분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불교'라는 거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짧고 명쾌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여시아문 추천 범공양 도서

- 1 작은 것이 아름답다 - E.F. 슈머 지음, 김진욱 옮김 / A5신 338쪽 / 범우사 값 6,000원
- 2 부끄러운 문화 담사기 - 기복문학의 지음 / A5신 338쪽 / 실천문학사 / 값 7,500원
- 3 일요일에 배달된 편지 - 나상호·김준만 지음 / A5신 176쪽 / 승리 / 값 5,000원
- 4 내 아들 딸들이 세상은 너의 것이다 - 율곡 이이 편, 안장환 역음 / B6 양장 146쪽 / 큰산 / 값 5,500원
- 5 인연 - 서정주 지음 / B6 200쪽 / 민속사 / 값 3,500원
- 6 건디의 생애와 사상 - 차기백 지음 / A5신 242쪽 / 한길사 / 값 6,500원
- 7 역사로 읽는 원호 - 김상현 지음 / A5신 352쪽 / 고려원 / 값 6,800원
- 8 미래 문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간 - 범문 지음 / B6 168쪽 / 정토출판 / 값 5,000원
- 9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 보자 - 손완철, 김용운 외 지음 / A5신 238쪽 / 시공사 값 7,000원
- 10 십대도 행복할 수 있다 - 선일 지음 / A5신 176쪽 / 대교출판 / 값 6,000원

여시아문 동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장: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02)737-0995, 732-1521
팩스: (02)737-0996

